

성화 3

(부활과의 연합과 부활의 두 과정)

여태까지 우리는 성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새사람으로 산다.]

성화도 믿음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성화를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을 공부하는 것은, 부활의 삶의 실생활에 대한 적용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의 근본이 되는 부활의 삶에 대해 먼저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찾아 보십시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약 성경에는 ‘죽는다’ ‘죽었다’ 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초등학문에 대해 죽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 모든 말들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 :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갈라디아서 5 :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 :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고 이 죽음은 모두 믿음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습니다. 새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옛 삶을 죽음에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6 장 보십시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깊이 깊이 마음에 넣어 두어야 할 말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고 나서 생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죽고 난 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 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도 현재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현재 그의 부활에 연합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삽니다. 이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먼저 죽고 난 후 그 후에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나는 편의상 ‘부활의 삶’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삶이 이렇게 현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습니다. 영생을 현재의 삶에서 소유하지 않고 미래의 내세에서 갖는다고 믿으니 현세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Mis-conception 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처처럼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하여는 너무 너무 제가 많이 여러 분들께 말한 것이지만 오늘도 다시반복합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zoe aionion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생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이 사망을 지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이 영생을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 5:26 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당신과 똑같은 분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신자들안에 들어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똑같이 가지시고 신자들 안에 들어 오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가지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고 난 후에 내세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성령의 내주로 갖게 됩니다. 이 영생이 자기 안에 들어온 확신을 가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터, 현세에서부터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터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생은 죽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이니 성경을 찾고 가십시오.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 :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현세에서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 :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⁵ Now it is God who has made us for this very purpose and has given us the Spirit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그래서 현세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John 14:19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seeth me no more; but ye see me: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이 영생은 피조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죽음을 극복한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행사하며 살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세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죽고 난 후 미래에만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 세상 살때 경험하는 부활은, 죽었던 영에 영생이 들어 오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는 영적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시 참여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영생을 가진 자가 변화한 육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육체의 불사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 세상에서 소유한 성도는 일단 몸이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시 참여하는 몸의 부활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부활을 체험합니다. 이 영적 부활의 증거가 바로 중생이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부활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부터 부활의 확신을 누린다는 진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더욱 유명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내세에서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현세에서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삽니다. 바로 이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현세에서의 삶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부터 누리는 삶이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John 14:19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seeth me no more; but ye see me: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극치는 부활의 삶을 얼마나 누리나 하는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느냐 안되느냐에서 찾으면 천년을 찾아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새사람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가 얼마나 부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세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가오는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위에서 사신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믿습니까?

히브리서 12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앞에 논 극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따는 사람들의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일언하고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삶이 이 땅위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죄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